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개관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사장 최경식, 이하 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연속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화장품분야)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전경

이 지원사업은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이하 '시군구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내 기업만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3억1천1백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연구원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시군구사업은 주관기관인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가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 컨소시엄 구성으로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군구사업의 핵심과제로는 피부과학 기반 브랜드 및 제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구축 등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 내용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화성장촉진(브랜드구축) △인식개선(기술설계, 기술실무, 기술심화)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전시박람회참가, 피부임상, 인증확보 등) △패키지지원(국내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등 1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1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남원시 소재 화장품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1차, 2차로 진행되며,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2차는 소비자 반응조사, 전시박람회 참가, 시험분석, 인증확보, 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성장전략 컨설팅, 사업화 애로해소 등 7개 사업, 24건에 대해서 오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기업지원(<https://nbnbiz.re.kr>)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www.sntech.go.kr/region/m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연구원은 지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기술, 장비 지원사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시험분석 및 인증확보,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성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 정책 중심지·소통·문화 활동 거점 기대

순창군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새로운 동지인 청년문화센터 개관을 마쳤다.

군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청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교류,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2억 4천만 원(국비 5억 1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원, 군비 6억 2800만 원)이 투입된 청년문화센터는 청년 정책의 중심지이자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청 앞 경천 건너편(순창읍 교성2길 25)에 위치한 청년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의 주건물(연면적 533㎡)과 부속건물(98㎡)로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 1층에는 청년정책팀 사무실, 다

목적실, 방음실, 커뮤니티홀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인구정책, 도농교류, 귀농귀촌팀 사무실과 함께 소회의실, 동아리방, 북카페 등이 조성돼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목적실, 방음실, 소회의실, 동아리방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문화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청년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수지면 사회적 협동조합 '쓰임', 재능기부 나서

남원시 수지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쓰임' (대표 변수봉)이 지난 7월 4일과 11일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3가정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1일 소통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사회적협동조합 '쓰임'과 협약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경로당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

임실군이 지난 3월부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과 연계하여 관내 경로당(24개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 진행한다.

△흡연예방 및 금연상담 △식주패턴교육 △영양교육 및 식이요법 △노인구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교육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자봉센터, 봉사천사 행복밥상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자봉봉사센터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천사 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남원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진행, 삼계탕 70그릇을 만들어 장애인,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했으며, 중복, 말북에도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지역 밀착형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시·군·센터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진행된 봉사활동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맞춤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아쿠아페스티벌 준비 한창

27일-8월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이벤트 광장서 개최

임실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2024 임실아쿠아페스티벌이 이달 27일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인 이달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임실아쿠아페스티벌을 임실치즈테마파크 이벤트 광장에서 연다.

이들 등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스템슬라이드는 이벤트 광장 계단을 활용한 높이 약 10m의 초대형 슬라이드로 이용객에게 엄청난 짜릿함과 스릴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및 주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몽골텐트, 파라솔, 캠핑텐트 등 다양한 쉼터를 마련하여 물놀이 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적극 보장한다.

그 외 샤워실, 탈의실, 먹거리 부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행사장 내 페인트 볼 사격 체험을 제공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어린이 DJ파티, 난타공연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객 모두가 하나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마다 수상 안전요원 그 밖에 의료, 주차, 환경미화 등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개장을 위해 수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도 청소위생과 등 담당 부서가 나서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아쿠아페스티벌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최대수용인원은 1,000명, 입장료는 일반인 8천원, 임실군민은 6천원이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기존 입장료에 2천원 추가할인을 진행한다.

입장표 구매 시 교환권 2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교환권은 행사장 내 매점 또는 치즈테마파크 내 지정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심민 군수는 "해마다 많은 도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축제이니 만큼, 안전사고는 물론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최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순창군은 최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표별 담당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가 직접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올해 들어 첫 번째로 개최된 합동평가 관련 회의로, 하반기

순창군 인사발령 단행 직후 즉시 이뤄진 합동평가에 대한 최 군수의 높은 관심도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부군수, 각 지표 담당 부서장 및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재까지 미달성 지표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대책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순창군의 6월 말 기준 합동평가 중량지표 추진율은 전체 67개 지표 중 2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해 34%의 달성률을 보였고, 미달성 지표는 44개인 것으로 보고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